

의식확장으로서의 건강* - 성폭력 피해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

공 수 자¹⁾

서 론

연구의 필요성

어떤 학문이 독자적인 정체성을 가지려면 그 학문에서 관심을 가지는 독특한 현상과 그 현상을 연구하는 연구방법론이 있어야 한다. 특히 다학제적인 접근이 증가하고 있는 현시점에서는 더욱 더 간호학만의 독특성과 유일성을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간호학문은 인접학문에 매몰되어 갈 것이고 결국 사라져 버리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Barrett, 2002). 이러한 간호학의 정체성을 찾는 작업과 관련하여 Parse(1995)의 “인간 되어감 (human-becoming)” 이론과 Newman(1986, 1994)의 “의식확장으로서 건강(health as expanding consciousness)” 이론과 이에 상응하는 연구방법론이 있다. 특히 Newman(1986, 1994)의 의식확장으로서의 건강 이론은 간호실무에 근거한 연구방법을 제시했다. Newman에 의하면 “건강이란 환경과의 상호작용 과정을 통해 보다 높은 차원으로 의식이 확장되어 가는 경험”을 말한다. Newman(1994)은 이러한 환경과의 상호작용 중에서 특히 참여자-간호사 사이의 상호관계를 필수적인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참여자-간호사 관계의 맥락에서 참여자와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양상을 인식하도록 돕는 것이 간호실무이며, 이러한 간호실무의 과정이 간호연구의 내용이라 했다.

Newman 건강이론에 근거한 실무연구방법을 적용한 연구는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집단에 대해 이루어졌으며 지지적인

결과가 축적되었다. 이 연구 결과를 연구 참여자집단에 따라 구분해보면, 다양한 진단에 따른 환자집단의 양상을 확인한 연구(Endo, 1998; Fryback, 1993; Jonsdottir, 1998; Kang, 2000; Newman & Moch, 1991), 환자를 부양하는 가족의 건강양상에 대한 연구(Endo et al., 2000; Yamashita, 1998., 1999),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의식확장의 양상을 검증한 연구(Kang, 1996; Pharris, 2002; Picard, 2000)와 간호교육에 적용했던 연구(Picard & Mariolis, 2002) 등이 있다. 이 연구들을 통해 Newman의 의식확장으로서의 건강이론이 간호학 고유의 지식체 개발에 유용한 연구방법임을 보여주었다. 특히 간호실무가 곧 연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실무현장에 적합한 간호이론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점에서 아직 적극적으로 탐구되지 못한 성폭력 피해자 건강 경험 탐색에 Newman 이론을 사용한다면 간호학적으로 의의가 매우 큰 일이라 하겠다.

특히 우리나라 성폭력 발생 실태는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숨기고 있는 실정이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정확한 통계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성폭력은 개인적, 가정적,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어 왔지만 아직 체계적인 대책이 미비한 상태이다. 게다가 성폭력 피해자의 문제는 아직 학문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지 못한 분야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국내에서 이루어진 성폭력 피해자 연구는 양적으로 지극히 미약하다. 또 이루어진 연구들도 실태 파악 수준이고, 피해자들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공하지 못했다. 성폭력 피해자

주요어 : 의식확장으로서의 건강, 성폭력 피해자, Newman의 실무연구방법론

* 본연구는 연구자의 박사학위논문(2003)의 일부임

1) 조선간호대학 교수

투고일: 2004년 1월 7일 심사완료일: 2004년 4월 28일

들의 경험을 Newman(1986, 1994)의 이론 틀 내에서 접근하면 참여자들을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양상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그들이 처한 맥락과 함께 고려할 때 그들의 경험의 의미는 좀 더 현실적이고 명료화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Newman(1986, 1994)의 건강 이론에 부합되는 실무연구방법을 사용하여 본 연구과정에서 참여자-연구자 상호작용을 통해 나타나는 건강경험의 양상을 탐색하고자 한다.

연구목적

연구자가 가진 연구 질문은 성폭력 피해자의 건강경험은 무엇인가?이며, 이를 탐색하기 위해서 연구목적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성폭력 피해자의 건강경험 양상을 확인한다.”

연구자로서 준비

본 연구를 수행하기 전에 연구자는 대학원에서 성행동 심리학을 수강했으며, 가족보건 복지협회에서 주관하는 청소년 성교육/성상담 전문가 과정을 6개월에 걸쳐 마쳤다. 이어 G시 여성민우회에서 실시한 성폭력 전문상담원 훈련과정을 마쳤다. 이후 XX 부설 성폭력 상담소에서 성폭력 피해자 심리상담을 담당했다. 또한 성폭력 현상에 대한 민감성을 더욱 증가시키기 위해 성폭력 가해자의 보호관찰 업무, 수강명령 프로그램,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또한 G시 여성 단체에서 성폭력관련 자문 및 성폭력전문상담원 교육에 참여했다.

아울러 질적 연구에 대해서는 대학원에서 질적 연구방법을 수강하였으며 질적 연구학회에서 현상학에 관한 워크숍에 참여했다. 또한 해석학적 내러티브 워크숍에 참가하여 참여자의 언어를 받아들이고 해석하기 위한 훈련을 받았다. 그리고 Newman의 건강이론과 실무연구방법론과 관련된 문헌을 가능한한 모두 탐색하여 읽었다. 아울러 Health as Expanding Consciousness(HEC) 이론을 중심으로 한 Newman 학자들간의 모임(interest group)에 가입하여 인터넷상의 교류에 참여하고 있다(tetra-ol@tc.umn.edu). 이를 통해 멤버들이 Newman의 건강이론과 실무연구방법과 관련하여 제기하는 의문과 그에 대한 회원들의 피드백을 통해 정보와 통찰력을 얻고 있다.

연구 방법

연구 참여자

본 연구 참여자는 2000년 9월부터 2002년 3월까지의 기간에 성폭력을 당한 후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XX 지부 부설

성폭력 상담소에 내소한 사람들이었다. 그 중 연구자로부터 연구 내용과 목적을 소개받고 참여를 수락한 9명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당시 17세에서 26세까지의 미혼 여성들이었다. 참여자들은 성폭력 당시 고등학생이거나 대학생 또는 고등학교나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했던 사람들이다. 9명 모두 낮은 사람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 성폭력은 광범위한 현상을 포괄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성폭력을 당한 조건에 따라서 그 경험에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모르는 사람에게 강간을 당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했다. 또한 대부분 참여자들은 성폭력을 당한 후 72시간 이내에 응급피임 시술을 받으러 왔거나 오래되지 않은 대상자들을 참여자로 하여 생생한 체험에 관한 정보를 얻고자 했다.

양상 탐색절차

Newman(1994)이 실무연구방법을 위한 프로토콜로 제시한 연구 단계는 다음과 같다: 1) 면담 2) 녹음 내용 필사 3) 내러티브 구성 4) 그림 그리기 5) 후속 면담 6) 이론의 적용이다. 이 프로토콜에 대해 Newman은 실무는 계속 발전해가는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 단계 모두가 잠정적인 것이라고 했다. 최근 Newman 이론을 적용한 연구들에서 연구자의 배경과 연구상황에 따라서 그 적용방법이 차이가 나타난다. Newman 자신도 건강이론은 적용 상황이나 방법에 따라 계속 발전해갈 수 있다 했으며, 이를 연구자의 고유한 양상으로 보았다.

본 연구 참여자의 양상 탐색 자료는 연구자가 직접 참여자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참여관찰과 대화를 통해 얻었다. 연구 참여자들에게 언제든지 참여 거절할 수 있음을 알리고 비밀보장을 약속하였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자료를 익명으로 처리하고 연구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을 알렸다. 아울러 녹취하거나 대화일지를 기록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동의를 구했다. 참여자와의 만났던 장소는 XX 부설 성폭력 상담소 내의 상담실이다. 대화하는 동안에는 외부 소음이나 타인의 간섭을 받지 않았다.

탐색기간은 2000년 9월부터 2002년 3월까지 이루어졌다. 대화시간은 1시간에서 2시간 사이였으며 대체로 3회에서 5회에 걸쳐 이루어졌다. 그러나 대화의 종료는 자연적으로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대화 시간을 정하지는 않았다. 실제로 참여자의 결정에 따라서 일어날 수 있게 했다. 상호관계의 종결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했다. 3회 대화가 이루어지는 1개월에 끝나기도 하고 6개월 이상 지속되기도 했다.

양상 분석방법

Newman(1994)의 실무연구방법에서 양상 분석은 해석학적-변증법적 과정이다(Picard, 2000). 해석학적이라는 말은 연구의 초점을 의미와 해석, 그리고 이해에 둔다는 뜻이다. 변증법적이라는 말은 연구 과정(참여자-연구자 관계)과 내용(참여자와 환경의 상호작용)의 특성이 변증법적이라는 의미이다. 또 변증법적이란 말은 개방적이고 발전적이라는 뜻이다(Rawnsley, 1993). 이 접근법에서는 인간을 이해할 때 역사적, 문화적 맥락 내에서 관점을 취하는 자기-해석적인 존재로 본다. 이 관점에서 지식은 결정과 행동의 기반이 되는 정보와 이해를 생성하는 연구자와 참여자간의 협력적인 노력에 의해 창조되는 것으로 본다(Jonsdottir, 1998).

본 연구에서는 양상 분석 전에 연구자가 자료에 민감해지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읽고 참여자가 의미하는 바를 파악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오랫동안 성찰했다. 양상분석은 상호작용이 끝날 때마다 이루어졌다. 녹음된 대화자료의 필사본, 연구자의 메모를 활용하여 요약 본을 만들어 다음 번 만났을 때 대화의 기본 자료로 사용했다. 전자우편이나 전화를 통해서 탐색된 자료도 분석에 포함되었다. 참여자들이 기술한 경험을 특징짓는 주요 주제들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는데 주력하였다. 연구자가 추출한 주요 주제들을 중심으로 대화를 진행했으며 참여자들에게 그 의미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 제시된 양상 인식 자료의 분석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졌다. 우선, 연구 목적 '성폭력 피해자의 건강 경험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3단계를 거쳤다. 구체적인 분석 내용은 1단계에서 참여자들이 성폭력 사건 이후 겪어야 했던 초기 건강경험의 양상을 확인했다. 2단계는 참여자들이 연구자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자신의 양상을 인식함에 따라 관점의 변화를 가져왔던 전환점을 확인했다. 3단계는 참여자들이 전환점을 기점으로 변환된 행동양상을 확인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일어난 연구자의 변환경험을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의 진실성

질적 연구에 있어서 엄격성(rigor)의 문제는 매우 논란이 되는 문제 중의 하나이다. 질적 연구는 양적 연구와 다른 패러다임 내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연구의 엄격성 평가도 다르다. 질적 연구에서도 양적 연구에서처럼 타당도와 신뢰도라는 명칭을 사용하되 내용만 달리 하는 학자들(예 : Leininger, 1985)과 명칭과 내용을 달리하는 학자들(예 : Sandelowski, 1986)이 있다(Lee, Yang, Ku, Eun, 2000에서 재인용). 본 연구에서는 Sandelowski(1986, 1993)와 Burns(1989)의 4가지 기준 1) 신빙

성(credibility) 2) 감사가능성(auditability) 3) 적합성(fittingness) 4) 일치성(confirmability) 적용하여 연구의 진실성을 향상시키고자 했다.

양상탐색 결과

성폭력 피해자 및 본 연구자의 건강경험을 탐색하기 위해 Newman의 실무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의식확장으로서의 건강 이론에 따른 참여자들의 건강 경험은 다음의 순차적인 세 가지 차원으로 나타났다. 첫째, 참여자들이 사건 이후 의식확장의 구속 단계에서 겪었던 초기 건강경험의 양상이었다. 둘째, 참여자들이 초기 건강경험 양상에 대한 인식과정에서 자신과 자신의 상황에 대한 통찰력을 얻고 새로운 행동의 가능성을 얻은 전환점 경험 양상이었다. 셋째, 참여자들이 전환점을 계기로 얻은 4가지 변환경험이었다. 마지막으로 연구자가 본 연구과정에서 경험한 의식확장의 결과는 5가지 범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 전환경험과 변환경험 및 연구자의 건강경험에 초점을 두어 논의한다(초기건강경험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공수자, 2003 참조바람).

참여자의 전환점 경험

●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는 답답함에서 벗어남

성폭력 피해자들이 공통적으로 호소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었던 답답함에 대한 호소였다. 우리나라처럼 집단주의적이고 관계 중심이며 치밀한 문화권에서는 사회망이 많아서 개인주의적이고 느슨한 문화권 보다 대화 상대자는 많다. 본 연구 참여자들도 친구나 가족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아왔음을 표현했다. 그러나 성폭력의 경우 사회적 낙인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아직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개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아니다. 따라서 성폭력 피해자들은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사회적 관계보다는 특별한 상황에서만 만나게 되는 전문적 관계를 통해서 해결 받을 수 있게 된 점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혼자서 물어 두려 했어요. 선생님께 이야기하면서 속이 후련하고 털어 내버린 기분이 들고--- 다른 사람한테 말하고 싶었지만 내 비밀을 다 아는 사람하고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편하게 지내지 못할 것 같아서요.” “위로 받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혼자서 이 악물고 참았어요. 괜히 말했다가 더럽혀졌다고 생각할 것 같고---. 너무 힘들어서 친구들한테 아무나 붙잡고 말해서 어떻게 하고 싶을 때도 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런 말을 하지 않은 것을 더 다행스럽게 생각해요. 내가 당한 일을 다 아는 사람과는 다 있고 즐겁게 보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교수님은 전문가시니

까 다 이해하실 것 같아요. 교수님 만나서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 안심이 되었어요----- 오늘 교수님 만나러 오니까 좋아진 모습 보여 드렸려고 한장도 했어요.” “아쭈, 진짜 제가 한 2주 동안 얼마나 웃고 킁들었는데요. 제가 얼마나 진짜--- 추석 때 집에 가서 재밌있게 놀지도 못하고-- 그때 아무나 볼려고 딱 말해버리고 싶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럭저럭 않은 것이 더 좋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한테도 말 못했어요. 솔직히 얼마나 킁드시겠어요? 근데 교수님이 어제 전화해주신 거예요. 킁들어서 혹시? 하고 나오긴 했지만 말약에 교수님도 그쪽 사람들처럼 짧은 머리에 - 그런 차집하고-- 또 딱딱하게 나왔으면 저 말도 안할려고 했어요. 교수님은-- 얼마 같은 분위기고--”

● 사건의 재구성과정에서 얻은 통찰력

연구자가 관찰하고 참여자의 기술에서 확인한 전환점은 참여자-연구자 상호작용 속에서 사건의 재경험을 통한 재구성이 중요한 전환점으로 보인다. 참여자들은 돌이킬 수 없는 사건에 대해 아쉬움과 후회가 너무 많았다. 그리고 더럽혀졌다고 생각하는 참여자들이 많았다. 그래서 성폭력 사건 당시 좀더 반항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자책이 심했다. 이러한 호소를 들을 때마다 연구자는 참여자와 함께 성폭력 사건의 재경험을 통한 재구성을 시도했다. 이 같은 재경험은 막연한 후회 감정 대신에 그 때 상황을 다시 조명함으로써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상황에 대한 통찰력이 생기게 하는 것 같다. 따라서 참여자는 다시 그 상황으로 되돌아가도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 참여자가 그 사실을 수용하게 되는 것이다.

“그동안 꼭 제가 잘못했다고-- 제 잘못이 크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교수님이 다시 그 상황으로 되돌아가 보자고 하셨을 때는--- 다시 되돌아가도 그렇게 밖에 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후회를 안하게 됐어요.” “교수님이 할 수만 있다면 가해자를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으셔서 가해자를 죽이겠다고 말했었는데 -- 지금은 그 사실이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됐어요.”

● 의문이나 걱정되는 일을 의논할 수 있게 됨

참여자들은 많은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안심을 얻고자 했다. 그리고 실제로 임신이나 성병에 대해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했다. 그들이 한결같은 두려움은 성폭력 가해자가 어디선가 주시할 것 같고 다시 또 당할지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남들이 자기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해서도 걱정했다. 또 그들은 사람들을 특히 남자들을 믿지 못하게 될 것 같고 정상적인 성관계를 하지 못하게 될 것 같다는 걱정을 했다.

“어디다 물어 볼 데도 없잖아요? 그걸 때 교수님 계셔서

좋았어요. 언제라도 궁금하고 걱정되면 물어보고, 대답해 주시면 안심이 됐어요---” “그 남자(성폭력 가해자- 연구자 주)가 꼭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았는데--- 교수님이 가해자들이 잠깐까봐서 동일한 장소에서 다시 나타나는 경우는 없었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조금 안심됐어요.” “가해자 성병에 걸렸으면 어쩌나--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몸이 조금만 이상해도--- 뭐가 조금만 나도-- 그걸 때 누구한테 물어보기도 그걸고 책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 때 전화하고 나니까 많이 편해졌어요.” “제가 원래 남자 친구하고도 성관계에서 별로 느낌이 없어서--- 제가 문제가 있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함께 자는 것도 싫어하고 피했거든요. 그런데 이전 일까지 있어서-- 이제 진짜 성적으로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진짜 하기 싫어하게 된 것 같아요”

연구자는 이 참여자에게 잡지 같은데서 여성의 성반응을 과장하여 표현하고 있는 사실을 지적해주었다. 그리고 미혼여성으로서 아직 성경험이 많지 않은 참여자로서는 성감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것은 정상적임을 알려주었다. 그 설명을 듣고 참여자는 ‘그동안 걱정했던 일’에 대해 안심하게 되었다고 했다.

● 지지 받음을 통한 자기-가치 확인

참여자들은 성폭력을 당한 후 가족, 친구, 남자 친구, 종교 지도자, 전문가로부터 받은 지지가 큰 위로가 되었고 다시 힘을 얻어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들게 되었다고 고백했다.

“친구한테 전화해서 데리러 타 달라고 했어요. 친구랑 집으로 뛰어와서 집 현관에서 엉엉 울었어요. 얼마나 무슨 일이냐고 해서 다 말씀드렸어요. 그 뒤로 얼마나 저녁에 마중나오고, 핸드폰 주시면서 전화해주시고--- 친구들도 잘해줘요.” “가족들이 편하게 대해주었어요. 서울 사는 오빠가 바로 내려와서--- 제가 무서워 하니까 같이 다녀주고-- 죽으려고 생각했었는데--- 남자 친구가 말없는 전화를 계속해주었어요. 감동스러웠어요. 밤시간 잘 때는 문자 보내고-- 그래서 일어나서 밥 먹고 -- 사탕의 힘이 크다는 것을 느꼈어요.” “신고 못하겠는데 선생님들이 도와주신다고 해서 신고했어요. 담임선생님이랑 가정선생님이랑 도와주신다고 해서--- 그리고 애들이 저 전학 간다고 추억 만든다고 사진도 찍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걸 때 되게 고마웠어요.” “다음에 방문 때 교수님을 꼭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교수님이 킁들 때는 하늘을 보라고-- 구름이 가려서 보이지 않을 때도 언제나 태양은 그 자리에 있다--”라고 보내주신 메일을 항상 되새기며 기억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뭐였을까? 희망--- 살아야 하는 길을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저

는 교수님을 만나게 해주신 분께 감사해요--- 교수님 아니었으면 저 휴학하고 지금은 뭐하고 있을지 --- 정말 감사합니다.” ‘어떤 일에 전념하는 것’이 전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자신의 처지에 적용해서 표현하고 있다. “요즘 저는 뭐라 할까 다른 일에 전념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그랬죠? 좋아하는 오빠가 있다구요. 제 생각에는 그 기억을 잊으려고 오히려 오빠한테 전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전념해 본 적은 없거든요. 차라리 그 기억을 하느니 오빠 생각을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네요. 그냥 저 혼자서 좋아하는 거니까 제가 힘들어하죠. 그런데 차라리 오빠를 생각하면서 힘들어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네요.”

다음은 한 참여자로부터 연구자에게 보내온 전자우편 속에 있었던 시(詩)이다. 그녀는 이를 통해 자신이 ‘절대자의 사랑’ 때문에 힘을 얻었음을 표현하고 있다.

당신이 존재하는 건 누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주변에서 알아나는 아주 작은 행복들..
그것이 사소한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을 위해 특별히 준비된 것입니다
힘든 시간을 버텨 낸 당신
누가 절실히 필요할 때 아무도 없애 주지 않아요?
그럼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당신에게 가는 욕심 없는 기대, 믿어주겠다는 약속, 당신을 보고 오는 눈빛
당신이 남어질 때 뒤에서 살짝 반추하던 순..
그 누군가가 없었으면 당신은 이미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참여자의 변환경험

참여자들 모두가 성폭력 사건을 경험하기 전과 비교해서 자신이 달라진 점에 대해서 진술하였다. 대체로 그들은 사물을 보는 방식이 달라졌다고 했다. 전에 보지 못하던 것까지 보게 되고, 자기만 생각하며 살았는데 다른 사람을 생각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자신의 안전을 고려하게 되었으며,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개선된 점을 진술했다.

● 의미 찾기를 통한 자아-확대 경험

참여자들은 자신들의 경험이 주는 의미를 탐색하면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해 주는 것의 의의와 중요성, 남을 돕는 일의 의의와 중요성을 깨닫게 되고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는 말들을 했다.

“교수님 덕분에 이전 좋은 격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정말 많이 편해졌어요. 심리적으로나 마음적으로-- 제게도 이전 날이 있구나 싶어요. --앞으로는 좋은 일 많이 하려

나보다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저도 나중에 교수님처럼 남을 도왔으면 좋겠어요. 상당도 하고 싶고-- 전엔 한 번도 다른 사람을 위해 살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데-- 이번에 교수님 아니었으면 정말 제가 어떻게 되었을까 싶기도 하고-- 아마 너무 저렇게 생각하며 살아서 이전 일이 ---” “봉사 쪽에 있으라고 하는 걸로 생각되었어요. ---저는 앞으로 호스피스 간호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내라 병원으로 옮긴 거예요.” “교수님이 계셔서 공감해주시고, 이해해주시고, 교수님 같은 분이 많이 계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나중에 잘돼서 교수님처럼 남을 돕는 일을 하면 좋겠어요. 저한테 전해주신 게 너무 고맙웠어요. 수속 끝나고---- 관심을 가져주셔서요.” “저는 저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아니 저렇게 생각하면서 살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남을 위해서 살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같은 사람(성폭력 피해자-연구자 주)을 위해서 살겠다는-- 아직은 꼭 그해야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관점의 변화

참여자들은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점들을 볼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전에는 곁에 나타나는 사실만 보았는데 지금은 그 이면까지 볼 수 있게 되었다고 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게 되었다고 했다.

“전에는 그냥 넘어갔던 일이 경려요. 성폭행 때 -- 한 여자 애 차트에 ‘secrete’ 이라고 써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이 젊은 여자가 secrete이니깐 뻥뻥 거 아니냐고--” “왜 뻥뻥 많잖아요? 그냥 남의 뻥 뻥 함부로 하고-- 그래서 제가 성폭력 당해서 그랬을 수도 있지 않겠냐고 했더니 애들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는 거 있죠. 전에 같으면 저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겼을텐데 ---” “전엔 사람을 특히 남자들을 아무 생각 없이 보게 되었는데, 지금은 그런 걸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항상 조심해요-- 혼자 다니거나, 밤늦게 다니거나 그러지 않고--- 앞으로는 조심해서 살고, 신중하게 행동하게 되고. 제가 더 성숙해질 거 같아요---”

● 자기-성찰을 통한 자기 발견

한 참여자는 “언마도 안 계시고 아빠 혼자서 키우시는데 속 많이 썩혀 드렸어요. 중 3 때 자퇴하고 가출도 하고-- 착하게 살아야죠.” “욱하는 성격이 있어서 노는 애들이랑 사이가 나빠져요. 친구랑 안 맞으니까 친구끼리도 잘 싸우고. 이제 잘 지내야겠어요. --- 엄청 활발해 가지고 까불고 그랬는데 이일로 인해 성숙되고 그럴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자신에 대해 새로운 결심을 표현하고 있었다.

또 다른 참여자는 이번 일을 계기로 그동안 아무에게도 못

했던 어린 시절부터 지니고 있던 마음 속 상처를 연구자에게 털어놓았다.

“어릴 때 부모님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술만 먹으면 언마한테 스트레스를 풀었어요. 중학----- 아버지가 자살하셨어요. 초등학교 때까지 그러셨는데-- 고등학교 때 도시생활에 적응을 못했어요. 고 2때까지도 자살 충동이 많았어요. 우울증도 있었고-- 지금까지 한번도 남에게 해보지 못한 말을 털어놓게 되어 후련해요. 교수님이 같은 전공이고 또 정신과 하신 다니까---그리고 교수님은 많이 편해요.” “사람들이 너무 고마웠어요.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잘해주지 못했는데-- 이번에 너무 많은 사랑을 경험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돕고 사는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저도 다른 사람들 도우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제가 좀 단단해 진 것 같아요. 이제 웬만한 일은 이겨 낼 것 같아요. 없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래도 제가 좀 성숙해진 것 같아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생각도 하게 되고 -- 다시 되돌아보기도 싫지만-- 그래도 잊어버릴 수 없을 줄 알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생각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어요.”

●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개선

참여자들은 이번 일을 겪으면서 친구들이나 가족들과 같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졌던 일에 대해 진술했다. 예를 들면 “전에는 애들이 안 놀아 줘서 억지하고 웃고 그랬는데--지금은 진짜로 잘 지내고 싶어요. 이번 일로 친구들이 고마운 걸 알았어요.” “이전에는 아빠랑 가식적인 말쑼했는데 아빠랑 정말 괜찮아졌어요. 아침에 등산도 같이 가고, 언니네 사업 일도 돕고--” “이제는 부모님 떠나서는 살지 않을 거구요. 가족의 소중함을 한 번 더 느끼며 살아갑니다. 앞으로 부모님께도 잘 해야겠군요----” “그 일 있고 남자들이 진짜 이상하게 보였는데--- 많이 괜찮아졌어요. 적대로 안 달라진 줄 알았는데 시간도 지나고 -- 또 교수님이 가해자들도 피해자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다 그런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연구자의 건강경험

본 연구에서 연구자는 참여자들과 가진 상호관계에서 판단하지 않고 지지적이며 진실된 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했다. 그들이 말할 때 그 심정을 읽으려 했고 말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들어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그들이 필요할 때 늘 그들 편에 함께 있어주겠다는 것을 말해주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들 스스로 무엇을 해야 하는 가를 알고 있다고 믿었다. 다만 연구자는 그 곁에서 그들이 그것을 하도록 힘을 주

어야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 상호작용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들과 같은 문제를 겪을 다른 피해자를 돕기 위해 그들의 경험을 나눌 필요가 있고, 그래서 도와주는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늘 말했다. 즉 경험한 사람이 가장 잘 도와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연구자의 선생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전달했다. 본 연구의 참여자-연구자 상호관계 과정에서 일어났던 경험을 관찰하고 성찰한 결과를 연구자가 경험한 건강경험은 다음과 같다.

● 깊은 유대감 속에 '지금 여기'에서의 삶을 체험

참여자들은 연구자와의 관계에서 성폭력이라는 사건이 일어났던 사실을 바꿀 수는 없지만 지금 자기 곁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이해하고 공감해준다는 것이 큰 위로가 됨을 알게 되었다고 했다. 그들은 연구자와 대화를 통해 자신들이 성폭력 사건에만 빠져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했다. 그래서 자신의 나머지 부분들은 다 그대로인데 그쪽은 전혀 보지 못하고 그 사건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했다.

● '진정으로 함께 있어줌'의 체험

참여자가 이전에 사용했던 대처 방법이 아무런 효과가 없는 위기 상황에서 그저 옆에 누군가가 함께 하며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이 큰 위로가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특히 참여자들은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털어놓을 수 있는 안전한 대상이 있다는 것에 대해 많이 감사하게 생각했다. 연구자는 평소에 간호의 의미를 “진정으로 함께 있어 줌(true presence)”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그것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기회였다. 간호란 ‘무엇인가를 하는 것(doin)’이라기 보다 ‘함께 존재하는 것(being)’이 더 중요함을 재차 확인하였다.

● 다른 사람을 돕는 삶의 귀중함을 체험

본 연구과정에서 참여자들은 지금까지의 자기 삶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게 됨으로써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남으로부터 크게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험이 없었던 참여자들로서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 문제를 털어놓는다는 것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다. 게다가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감추고 싶어했다. 그러나 연구자와의 관계가 이루어져서 믿는 마음이 생기고 솔직하게 자신을 드러내놓고 도움을 청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가 아님을 알게 된다. 한 참여자가 “이대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시간을 보냈다면 더 많이 기억이 남아 있었을 것이다. 상처가 아물게 되더라도 보기 싫게 아물었을 것이다”고 말했다. 연구자가 드러낼 만한

행동이나 특별한 처치를 한 것도 아니지만 참여자들이 곤경에 빠진 시기에 함께 한 것만으로 그들은 많이 고마워했다. 참여자들은 한결같이 그들도 나중에 연구자처럼 남을 돕는 삶을 살겠다고 미래에 대한 다짐을 했다.

이러한 현상을 관찰하면서 연구자는 이번 실무연구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었다기 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얻었다고 생각한다. “나와 함께 강을 건너보자. 아직 강을 건너지 않은 상태에서 건너편 마을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자. 그러나 우리가 그 강을 건너고 나면 다시는 건너기 이전으로 되돌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을 믿고 가보자.” 라고 권유한 연구자를 믿고 의지하고 따라와 주는 참여자들에게 고마움을 느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치유자로서의 힘을 감지할 수 있었다. 향후 성폭력 피해자가 아닌 다른 역경에 처한 사람들과도 부족하지만 함께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느꼈다.

● 성폭력 피해자를 도와줄 수 있다는 자신감

본 연구과정은 참여자 뿐 아니라 연구자에게도 변환적이었다. 본 연구자는 이 연구경험을 통해서 실무자로서 개인적 실무의 기틀을 창조했다. 만일 이 연구를 수행하지 않았다면 연구자는 성폭력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름대로 알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참여자들이 경험을 들으면서 연구자가 그동안 지니고 있던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관점이 변화되었다. 우선 그렇게 힘든 경험인 줄은 몰랐다. 그리고 통제할 수 없는 두려움이 엄습한다는 것도 제대로 알지 못했다. 그리고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의 편견에 대해서도 그리고 그들이 받는 부적절한 처리과정에 대해서도 몰랐을 것이다. 성폭력이 그들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그 고통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연구자로서는 Newman(1994)의 실무연구방법론을 사용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했다. 이러한 경험은 Litchfield(1993, 1997)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본 실무연구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연구자는 사람의 역경에 처한 다른 대상자들에게도 Newman의 의식확장으로서의 건강이론과 실무연구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귀중한 경험을 하였다.

● 이해와 공감을 표시하는 언어의 중요성 깨달음

본 실무연구는 대화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언어가 중요하다. 그러나 참여자-연구자 상호작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언어만은 아니다. 그러나 이들은 연구자와의 관계 내에서 보다 다른 관계에서 말로 상처를 많이 받아서 연구자와의 관계에서 이해와 공감해주는 한마디 따뜻한 말이 무엇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참여자들은 상담소 직원들의 도움을 거절했던 이유가 마음을 닫히게 하는 그들의 말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결국 사소하게 보여지는 언어 때문에 변환으로 향

하는 문을 열지 못하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연구자도 참여자들이 이러한 경험을 들으면서 참여자-연구자 파트너십의 과정이 결국 이해와 공감을 표현하는 말 때문에 가능해짐을 알게 되었다. 참여자의 마음이 열리게 되면 이전에 표출하지 못했던 감정들을 표출할 수 있게 되고, 그들이 자신과 자신이 상황에 대해 이해하게 되어 자기들이 해야 할 행동에 대한 가능성을 가지게 되는 통찰력을 얻는 이 모든 과정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본 연구 참여자는 성폭력이라는 삶의 역경에 처해서 연구자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자신이 건강 경험을 인식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 기회를 통해 참여자는 자신과 자신의 환경에 대한 이해가 증가되어 새로운 행동에 대한 통찰력을 얻었다. 더 나아가 참여자들은 성폭력 이전 보다 더 높은 의식 수준까지 나아갈 수 있었다. 아울러 연구자에게는 새로운 현상에 대한 이해는 물론 자신을 다시 되돌아볼 수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Newman(1994)의 건강이론과 실무연구방법을 사용함으로써 독자적인 실무 개발의 기회가 되었다. 이는 Newman(1986, 1994)의 의식-확장을 통한 건강이론을 지지하는 결과로 라 하겠다.

논 의

본 연구는 Newman(1994)이 제안한 의식확장으로서 건강이론과 그 이론에 부합되는 실무연구방법을 사용하여 성폭력 피해자들의 건강 경험을 탐색하였다. 그 결과 참여자들은 연구자-참여자 상호작용과정에서 자기 자신과 자신의 환경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얻게되는 전환점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전환경험은 대안적인 행동가능성에 대해 의식확장이 일어나는 변환경험을 하게되었음을 확인하였다.

Newman(1988)에 따르면 사람들이 간호사의 관심을 받게되는 상황은 그들이 삶에 적응했던 규칙이 더 이상 쓸모 없는 것이 되어 새로운 선택을 해야하는 시기라고 했다. 본 연구 참여자들도 성폭력이라는 전혀 예기치 못한 사건을 당해 이전에 사용하던 적응기제와 대처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새로운 선택을 해야 하는 시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기에 참여자-연구자 상호관계에 참여하여 자신의 삶과 존재방식을 되돌아보는 경험을 갖게되었다. 이러한 자기성찰을 통해 새로운 자기인식과 상황에 대한 통찰력을 얻게되어 마침내 이들은 성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은 그대로 있을지라도 그 이전 보다 더 자유로운 시공간 속으로 나아가는 변환 경험을 했다. 선행 연구에서도 이러한 삶의 역경을 맞은 시기에 참여자-연구자의 파트너십 속에서 참여자에게 자신의 양상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귀한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Endo et al., 1998, 2000; Lichfield, 1993, 1997;

Yamashita, 1999, 1998). 이러한 양상의 인식은 Newman 이론의 진수이며 간호사가 진실하게 치료적으로 자기를 이용(therapeutic use of self)할 때 일어나며 대상자로 하여금 환경과 상호작용의 전체 양상을 이해하고, 그 의미를 탐색하도록 이끈다(Smith, 1990). 이같은 변화는 참여자들이 이러한 자신의 행동 양상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자신과 자신의 삶을 성찰함으로써 자신과 자신이 환경에 대해 이해하게 됨으로써 일어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이 변환하도록 돕는 이해라는 첫째, 그들이 경험한 성폭력 사건이 자신들이 받을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다. 다시 말해 성폭력 사건의 책임이 그들에게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들에게 이러한 이해가 일어나려면 먼저 일어났던 일에 대해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인식은 참여자-연구자 상호작용 내에서 대화를 통해 일어날 수 있다. 그들은 연구자를 믿고 자기에게 있었던 일들을 모두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그 사건에 수반된 감정을 재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재경험을 통해 감정을 표출하고 나면 자기 안에 자리잡고 있는 왜곡된 지각이 외현적으로 가시화된다. 그래서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지각이 자신의 본질이 아님을 인식하게 된다. 이러한 견해는 Pharris(2002) 연구에서도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살인범으로 선고된 청소년들이 내면화되어 있던 수치심을 표출하면서 자기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변환됨을 보여주었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는 참여자들이 자신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비춰볼 수 있는 맑고 깨끗한 연못(pool)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둘째, 성폭력 사건은 자신과 자기 삶의 한 부분일 뿐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성폭력 피해자에게 성폭력과 관련해서 경험했던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는 양상인식 단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이처럼 전체적인 생활 속에서 성폭력 사건을 보도록 하는 것은 자신이 왜곡된 지각 속에 얽매어 있음을 깨닫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Litchfield(1993) 연구에서도 나타난다. 그녀는 이 연구에서 가족의 건강 경험에 초점을 맞추었다. 연구에 참여했던 가족이 비전없이 현재에 존재하는 것에서 현재란 과거와 미래와 연관된 것이라는 의미를 갖게 될 때 나타나는 의식확장을 기술했다. 비록 어린아이의 불확실한 의학적 상태는 그대로였지만 이제는 그것이 가족생활의 초점이 아니고 가족생활의 일부로 통합되었다. Endo 등(2000)의 암환자 가족에 대한 연구에서도 현재의 어려운 상황에만 초점을 두는 가족들이 양상 인식을 통해 과거의 생활과 연결시킴으로써 미래에 대한 통찰력을 얻는다. 양상 인식은 부분의 인식에서 전체의 인식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을 보여준다.

셋째, 연구자와의 안전한 관계에서 자신의 경험을 노출하는 일이 수치스럽고 위험한 일이 아님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Yamashita(1999)의 연구에서도 정신질환자의 부양자들이 정신병에 걸린 가족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큰일로 생각했으나 간호사-참여자 관계 속에서 그 사실을 개방하도록 격려 받고 그 사실을 알렸을 때 다른 사람들 중에도 그들에게도 정신병에 걸린 가족, 친지, 이웃이 많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결국 어떤 문제를 노출시키는 문제는 자신의 문제 때문이지 다른 사람들의 문제 때문이 아님을 알게 된다. 또한 Petrak(1996)의 성폭력 피해자의 노출에 근거하여 그들의 요구에 따라 개별적으로 개발한 치료방법이 효과적이라는 주장과 맥락을 같이한다. 그는 최근에 개발된 치료 유형인 성폭력 피해자가 노출하는 내용과 요구에 기반한 개별적인(tailored) 치료방법이 유망하다고 했다. 최근 Harvey 등(2000)은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경험에 대한 네러티브를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자신들의 경험을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는 기회가 성폭력과 관련된 심리적 외상과 회복 과정에 전환점이 될 수 있음을 제시했다. Anderson(1997)은 대상자-치료자 관계를 연구하기 위해 치료가 끝난 후 대상자와 치료자가 함께 만나 치료경험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도록 했다. 그 결과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동해가고(활동하고), 자신과 타인과 함께 대화 속에서 계속적으로 의미를 창조하고 재창조해나간다. 또한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구성된 사회에서 존재한다는 것은 순간에 존재하며 언어 속에 존재하고, 또 대화와 관계 속에 존재한다고 했다. 아울러 문화와 시간, 그리고 자연 속에 존재한다. 그리고 변환된다는 것은 우리의 활동이나 언어, 대화나 관계에서 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본 연구 참여자들도 성폭력 당했던 사실 자체가 달라진 것은 아니지만 환경과 상호작용 속에서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자신과 환경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게 됨으로써 순간에 존재할 수 있게 됨으로써 변화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넷째, 실제로 성폭력 사건 이후 자신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연구자는 그들이 성폭력을 당한 후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분투해 왔던 사실을 지적해주면서 그들을 격려했다. 참여자에게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과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왔다”는 사실을 주목시키려 했다. 이러한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참여자들은 자신의 내부에 있는 힘과 긍정적인 측면을 인식하고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한 통찰력을 얻었다. 최근 Harvey 등(2000)도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그리고 과거의 외상에 맞서서 다루기 위한 그들의 노력을 지지하고 그들의 삶을 나아가도록 만드는데 있어서 새로운 이해에 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 참여자를 돕기 위해 함께 해주었던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이야기하도록 하는 것이다. 본 연구 참여자들도 연구자와 대화를 통해 자기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함께 해주었던

시간과 돌봄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성폭력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보호받고 보살핌을 받을만한 귀한 존재임을 이해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 참여자들이 성폭력 당했던 사실 자체가 달라진 것은 아니지만 환경과 상호작용 속에서 계속해서 자신과 환경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게 됨으로써 순간에 존재할 수 있게 되어 변화될 수 있는 근거로 생각된다.

본 연구과정은 참여자 뿐 아니라 연구자에게도 변환적이었다. 우선, 연구자는 비록 참여자들이 처한 상황을 바꾸어줄 수 없더라도 그들과의 관계속에서 대화를 통해 놀라게 변화될 수 있다는 점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었다. 그것은 ‘그때 그 사건’에 대한 초점에서 ‘지금 여기에서의 느낌’이 어떤가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그가 얼마나 환경과 상호작용을 통해 얼마나 열심히 분투해왔는가를 조명해줌으로써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 이러한 경험은 Yamashita(1999)의 연구에서 표현되었다. 즉 “두 사람이 서로 진실되게 상호작용하면, 즉 순간에 완전히 존재할 수 있게 되면, 각자의 양상이 상대방의 양상과 상호작용하여 에너지파가 상대방의 방해하는 양상 쪽으로 방사되는 것을 상상할 수 있게 된다.” 다음, 이 연구경험을 통해서 실무자로서 개인적 실무의 기틀을 창조했다. 만일 이 연구를 수행하지 않았다면 연구자는 성폭력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름대로 알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참여자들이 경험을 들으면서 연구자가 그동안 지니고 있던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관점이 변화하게 되었다. 우선 그렇게 힘든 경험인 줄은 몰랐다. 그리고 통제할 수 없는 두려움이 엄습한다는 것도 제대로 알지 못했다. 그리고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의 편견에 대해서도 그리고 그들이 받는 부적절한 처리과정에 대해서도 몰랐을 것이다. 성폭력이 그들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그 고통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끝으로, Newman(1994)의 의식확장으로서의 건강이론과 실무연구방법론을 사용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했다. 이러한 경험은 Litchfield(1993, 1997)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본 실무연구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연구자는 사람의 역경에 처한 다른 대상자들에게도 Newman의 의식확장으로서의 건강이론과 실무연구방법론을 사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귀중한 경험을 하였다. 이같은 결과는 Newman(1986, 1994)의 의식-확장을 통한 건강 이론을 지지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결과와 간호학적 의의는 첫째, 간호이론에 대한 의의는 전체로서의 대상자에게 초점을 두는 단일-변환적 패러다임에서 나온 Newman(1986, 1994)의 의식확장이론으로서의 건강이론에 대한 지지증거를 제공하였다. 둘째, 간호연구에 대한 의의는 본 연구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Newman의 실무연구방법론을 경험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이다. 간호이론에 근거

한 연구방법론을 사용하여 성폭력 피해자의 경험을 탐색함으로써 변환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줄 수 있었다. 셋째, 간호실무에 대한 의의를 살펴보면 Newman(1986)의 실무연구방법론은 Endo 등(2000)에 의하면 실무연구방법론의 주요 방법인 양상인식이 바로 간호중재이다. 이러한 간호중재는 의학적 진단의 관점에서 대상자의 문제를 고치려하지 않고, 대상자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더 잘 알게 하고, 현재 상황과 삶에서 의미를 찾고, 미래에 대한 통찰력을 얻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연구 결과는 성폭력 상담소나 소년원, 분류집사원, 응급실이나 산부인과 등에서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를 다루는 간호사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아울러 학교나 지역사회 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에게도 성폭력 현상에 대한 이해와 아울러 실무방법을 제공한다. 사람들의 건강경험을 돌보는 간호중재로서의 양상인식 과정은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마음을 열게 하여 그들이 부정적 감정을 표출할 수 있게 하며, 자신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이 실무연구방법은 무엇보다 대상자 자신을 자기문제의 전문가로 보고 직접 자신의 문제 해결에 참여시킨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끝으로, 간호교육에 대한 의의는 우리나라의 간호교육 내용은 전체성(totality) 패러다임에 근거하고 있다. 이 패러다임에서는 인간과 인간의 건강문제를 서로 분리되어서 상호작용하는 부분들로 만들어진 생물·심리·사회·영적인 존재로 다룬다. 그리고 독자적인 간호학문의 지식보다는 의학이나 다른 학문의 지식 습득에 치중하고 있다. Nagle(1999)은 우리 간호학의 미래는 다른 학문과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으면 소멸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소멸이나 구별이냐의 문제’라고 단호하게 주장했다. Newman 등(1991)에 따르면 단일-변환적 지식이 간호학문에 필수적이므로 기본 간호교육에 반영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었다(예: Picard 등, 2000).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Newman(1994)이 제안한 의식확장으로서 건강이론과 그 이론에 부합되는 실무연구방법론을 사용하여 성폭력 피해자의 건강경험을 확인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는 성폭력 피해라는 삶의 역경에 처한 참여자들이 의식확장을 통해 변환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아울러 간호사로서의 연구자도 참여자들과의 실무연구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성폭력이라는 새로운 현상에 대한 이해는 물론 치유자로서의 자신을 재인식할 수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Newman (1994)의 실무연구방법론을 적용해봄으로써 성폭력 피해자는 물론 다른 삶의 역경에 처한 대상자들에게도 접근할 수 있는 실무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 같은 결과는 Newman (1986, 1994)의 의식-확장을 통한 건강 이론을 지지

하는 결과로 여겨진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과정에서 연구자-참여자 상호작용 과정에서 참여자가 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경험한 건강경험의 양상을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참여자가 성폭력 경험으로부터 성폭력과 관련하여 자신의 행동에 대한 통찰력을 얻고 새로운 행동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는 전환점은 1)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는 답답함에서 벗어남 2) 사건의 재구성 과정에서 얻은 통찰력 3) 의문이나 걱정되는 일을 의논할 수 있게 됨 4) 지지 받음을 통한 자기-가치 확인으로 나타났다. 둘째, 참여자가 성폭력 피해경험을 통해 새로운 통찰력을 얻는 전환점을 계기로 새롭게 얻은 변환 경험은 1) 의미 찾기를 통한 자아-확장 2) 관점의 변화 3) 자기-성찰을 통한 자기-발견 4)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개선으로 나타났다. 셋째, 본 연구과정에서 얻어진 연구자의 건강 경험은 1) 깊은 유대감 속에 '지금 여기'에서의 삶을 체험 2) '진정으로 함께 있어줌'의 체험 3) 다른 사람을 돕는 삶의 귀중함 체험 4) 성폭력 피해자를 도와줄 수 있다는 자신감 5) 이해와 공감을 표시하는 언어의 중요성 깨달음이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성폭력 피해자들의 경험을 Newman (1986, 1994)의 이론 틀을 가지고 접근했을 때 피해자들이 자신의 상황을 현실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고, 내적 잠재력을 동원할 수 있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간호사와 참여자의 상호관계 속에서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성폭력 피해자들과 그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고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간호실무연구 방법의 한 예를 제시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본 연구는 누만 이론의 유용성을 지지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결론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추후 연구를 위해 제언한다. 1) Newman(1994)의 실무연구방법을 사용하여 또 다른 삶의 역경에 처한 대상자들의 건강경험 양상을 확인하는 연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다양한 간호실무 현장에 Newman의 실무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참여자-간호사 상호작용 과정을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3) Newman 실무연구에 참여했던 성폭력 피해자의 추후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4) Newman 실무연구에 참여했던 성폭력 피해자와 참여하지 않은 성폭력 피해자를 종단적으로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5) 이상의 연구 활동을 통해 Newman 실무연구방법에 대한 합의된 지식을 산출해야 하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한 간호교육과 간호실무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References

Anderson, T. (1997). Researching client-therapist relationships : A collaborative study for informing therapy. *Journal of*

- Systemic Therapy*, 16(2), 125-133.
- Barrett, E. A. M. (2002). What is nursing science? *Nurs Sci Q*, 15(1), 51- 60.
- Endo, E. (1998). Pattern recognition as a cursing intervention with Japanese women with ovarian cancer. *Adv Nurs Sci*, 20(4), 49-61.
- Endo, E., Nitta, N., Inayoshi, M., Saito, R., Takemura, K., Minegishi, H., Kubo, S., & Kondo, M. (2000). Pattern recognition as a caring partnership in families with cancer. *J Adv Nurs*, 32(3), 603-610.
- Fryback, P. B. (1993). Health for people with a terminal diagnosis. *Nurs Sci Q*, 6(3), 147-159.
- Harvey, M. R., Mishler, E. G., Koenen, K., & Harney, P. A. (2000). In the aftermath of sexual abuse : Making and remaking meaning in narratives of trauma and recovery. *Narrative Inquiry*, 10(2), 291-311.
- Jonsdottir, H. (1998). Life patterns of people with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 Isolation and being closed in. *Nurs Sci Q*, 11(4), 160-166.
- Kang, H. Y. (2000). A study on health as expanding consciousness of korean elderly people with chronic illness in the community. *J Korean Comm Nurs*, 11(1), 172-183.
- Kang, H. Y. (1996). *Health as expanding consciousness*. Seoul : Hyunmoon Sa.
- Kang, H. Y. (1994). *The health experiences of the community health practitioner shared with korean rural people: From the perspective of Newman's praxis methodolog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Litchfield, M. C. (1997). *The process of nursing partnership in family health*. Graduate school of university of Minnesota.
- Litchfield, M. C. (1993). *The process of health patterning in family with young children who have been repeatedly hospitalized*. The graduated school of university of Minnesota.
- Nagle, L. M. (1999). A matter of extinction or distinction. *West J Nurs Res*, 21, 71-82.
- Newman, M. A. (1994). *Health as Expanding Consciousness*. Sudbury, MA: Jones & Bartlett.
- Newman, M. A. (1988). Newman' theory of health as praxis. *Nurs Sci Q*, 3(1), 37-41.
- Newman, M. A. (1986). *Health as Expanding Consciousness*. St. Louis : C. V. Mosby.
- Newman, M. A., Sime, A. M., & Corcoran-Perry, S. A. (1991). The focus of the discipline of nursing. *Adv Nurs Sci*, 14, 1-6.
- Newman, M. A., & Moch, S. D. (1991). Life patterns of persons with coronary heart disease. *Nurs Sci Q*, 4(4), 161-167.
- Parse, R. R. (1995). The human becoming theory. In R. R. Parse (ed.), *Illumination : The human becoming theory in practice and research*. New York : NLN.
- Petrak, J. (1996). Current trends in the psychological assessment and treatment of victims of sexual violence. *Sexual & Marital Therapy*, 11(1), 37-45.

- Pharris, M. H. (2002). Coming to know ourselves as community through a nursing partnership with adolescents convicted of murder. *Adv Nurs Sci*, 24(3), 21-42.
- Picard, C., & Mariolis, T. (2002). Praxis as a Mirroring process: Teaching psychiatric nursing grounded in Newman's health as expanding consciousness. *Nurs Sci Q*, 15(2), 118-122.
- Picard, C. (2000). Pattern of expanding consciousness in mid-life women : Creative movement and the narrative as modes of expression. *Nurs Sci Q*, 13(2), 150-157.
- Rawnsley, M. M. (1993). Dialectics and the diverse discourse in nursing science. *Nurs Sci Q*, 6(1), 2-4.
- Smith, M. C. (1995). The core of advanced practice nursing. *Nurs Sci Q*, 8(1), 2-3.
- Yamashita, M. (1999). Newman's theory of health applied in family caregiving in Canada. *Nurs Sci Q*, 12(1), 72-79.
- Yamashita, M. (1998). Newman's theory of health as expending consciousness : Research on family caregiving in mental illness in Japan. *Nurs Sci Q*, 11(3), 110-115.

Health as Expanding Consciousness: Based on the Experiences of Victims of Sexual Violence

Gong, Su-Ja¹⁾

1) Professor, Chosun Nursing College

Purpose: This study was to explore health experiences of victims of sexual violence reflected in Newman's health as expanding consciousness theory. **Method:** Nurse as researcher use Newman's praxis methodology because it is good for showing the process of interaction between researcher and sexual abuse victims. **Results:** The significant characteristics of early health experiences during negative situations were a lot of suffering. However, after a turning point in health experience, the health experiences of most of the participants evolved as expanding consciousness. **Conclusion:** The study has provided support for Newman's theory of health. Most of the participants recognised meanings in their patterns and trustful caring relationships with the nurse as researcher. Pattern recognition as a nursing practice was a meaningful transforming process in the participant-nurse partnership.

Key words : Newman's praxis methodology, Sexual violence, Health as expanding consciousness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Gong, Su-Ja

Professor, Chosun Nursing College

280, Seoseok Dong, Dong-gu, Gwang Ju 502-825, Korea

Tel: +82-62-232-6761 Fax: +82-62-231-7315 E-mail: sjgong@venus.cnc.ac.kr